빛으로 물드는 빛고을의 밤…광주, 연말연시 '축제모드'

'크리스마스ⓝ광주빛축제' 문화전당, 사직·양림·동명동 등 일원
빛 조형물 설치, 콘서트·이디엠 파티 등 다채…기념품·여행 이벤트도

연말까지 광주 도심 곳곳에서 추운 겨울밤 온기를 불어넣을 화려한 빛의 축제가 열릴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연말까지 사직동, 양림동, 아시아음식문화지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동명동 일원에서 '크리스마스ⓝ광주빛축제'를 연다.

'크리스마스ⓝ광주빛축제'는 광주시의 축제 브랜딩 정책에 따라 겨울철 각종 축제를 연계 통합했으며, 사직동에서 양림동, 아시아음식문화지구(옛 시청 주변)를 거쳐 5·18민주광장, 동명동까지 화려한 빛 조형물이 설치됐다. 또 크리스마스합창제, 버스킹공연, 벼룩시장(플리마켓) 등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시즌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달말부터 공식운영에 들어간 유네스코 창의 벨트 3권역의 사직공원 '빛의 숲'은 수많은 소망들이 하늘의 별이 돼 사직공원에 은하수로 쏟아지는 콘셉트로 구성돼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양림동 일원에서는 지난 2일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시작으로 양림&크리스마스 축제가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양림오거리의 대형트리 등 빛 조형물과 함께 주민참여 행진(퍼레이드), 한밤의 크리스마스 합창제, 신나는 이디엠(EDM) 파티 씽씽 이브닝, 성탄 음악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양림의 문 입구 소공원에서는 오는 23~25일 평화와 화합을 주제로 '포용의 도시 광주'를 표현하는 한지조형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이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양림동, 사직 빛의 숲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옛 시청 주변에 자리한 아시아음식문화지구에서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겨울축제'가 13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열린다. 광주 폴리I(열린공간), 웨딩의 거리와 광주천변(금교~서석교) 등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주변이 화려한 빛으로 장식될 예정이다. 크리스마스 시즌(12월 22일~24일)에는 솔로 파티, 버스킹 공연 등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5·18민주광장에서는 최근 크리스마스트리 점화식을 시작으로 빛고을성탄문화축제가 진행된다. 23~25일에는 벼룩시장(플리마켓)도 연다.

동리단길로 불리는 동명동 거리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이다. 여행자의 집(ZIP)까지 이어지는 카페 거리에는 연말연시 문구와 이미지 등 화려한 조명이 엠지(MZ) 세대를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 밖에 시청 앞 잔디광장에는 크리스마스 아치 트리와 대형 그네가 설치돼 연말연시 광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는 크리스마스 빛축제를 맞아 16일부터 연말까지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오매나와 떠나는 겨울 광주 여행'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직 빛의 숲, 양림 크리스마스, 아시아음식문화지구 겨울축제, 5·18민주광장, 동명동 등 5개 권역 가운데 3곳 이상 방문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면 선착순 일일 50명에게 오매나 캐릭터 기념품을 제공한다.

'크리스마스ⓝ겨울축제'의 자세한 내용은 광주관광포털 '오매광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권역별 행사를 집중 홍보해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시 또 9일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대인예술시장에서 올해 마지막 '남도달밤야시장 시즌4'도 운영한다. 남도달밤야시장은 2023년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예술형 야시장, 관광형 야시장, 게임형 야시장 등의 콘셉트로 선보였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행사는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미리 크리스마스' 야시장을 콘셉트로 다채로운 공연, 예술전시, 스마트관광게임, 작가예술체험 등을 선보인다. 시즌3에서 시범 운영한 야시장 전용 앱 '나이트마켓'도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빛과 소망이 있는 겨울축제의 장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방문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저물어가는 2023년 한해를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국민해양안전관'이 7일 오후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에 개관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 및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전남도 '1% 저리'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22일까지 접수…축산농가, 가공·유통·판매업체 대상 200억원

전남도가 환경친화 축산 육성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2024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사업비 200억원을 연리 1%로 저리 융자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농업인·법인 30억원, 축산물 유통·가공업 30억원이다. 운영자금은 농업인·법인 4억원,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 6억원이다.

융자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인증 농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농가 등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판매장 개설자 등이다. 신규 축산 농가의 경우 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해썹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24년에는 ▲탄소중립 시설 ▲축사 활용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저탄소축산물 인증 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강화에 따른 케이지 교체 산란계농가는 우선 지원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사업 대상자 및 사업비는 2024년 1월께 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을 바라면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 및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등의 원활한 시설 확충·운영을 위해 최대한 많은 사업 대상자가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친환경축산 확대 및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녹색축산육성기금 958억원을 조성, 지금까지 587농가에 1720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공항 이전' 해법 찾을까

17일 나주서 회동…김 지사 제안에 강 시장 화답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민간·군 (軍)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서 만남을 갖고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번 회담은 김 지사가 '양자 회동'을 제안한 뒤 강 시장이 '화답'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연말 공식 행사 등으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휴일임에도 약속을 잡았다는 점에서 올해 안에 가시적인 해법을 도출해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오는 2025년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KTX로 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만큼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속히 국내선 이전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군 공항도 전투기로 고작 1분 남짓한 지역에 수천억원을 투입해 공항을 짓는 것보다 모든 공항 인프라가 갖춰진 무안으로 이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당위성이 지배적이지만 소음 논쟁 등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형편이다.

김 지사가 해외 순방을 마친 뒤 곧바로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주선, 논의에 나선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무안공항은 지난 2007년 11월 개항 이후 16년이 흘렀음에도, 민간공항 이전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서남권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토교통부가 '제 4, 5, 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한다'고 명시했지만 정치 지도자들의 외면·눈치보기 등으로 공항 활성화가 더딘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중점 프로젝트 유치전 돌입

전략·에너지 산업 전략회의

전남도는 7일 도청 정철실에서 관련 부서와 전남테크노파크 등 산하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너지 산업 분야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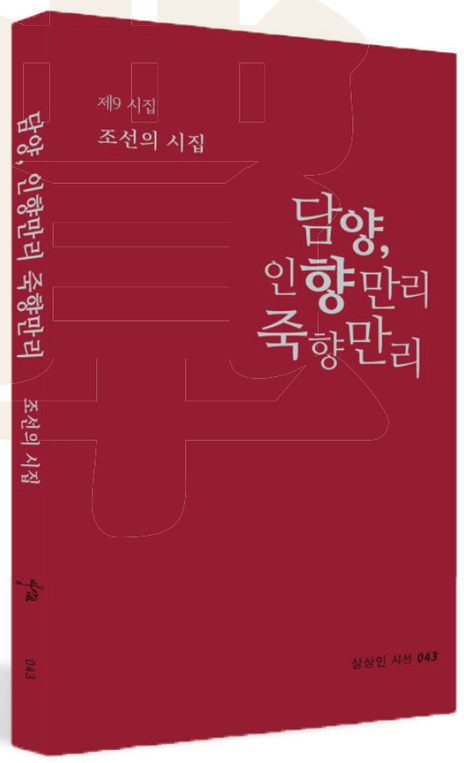
전남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부서와 기관 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업 시스템을 강화해 대규모 역점 프로젝트 유치, 경쟁 시·도·중앙부처 동향 파악 등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 역점정책과 관련해 경쟁 중인 타 시·도, 중앙부처에 대한 동향 파악에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남도와 지역 혁신기관이 협업 시스템을 강화해 내년도 중점 프로젝트를 유치하자"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미래 먹거리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우주항공 발사체 클러스터, 이차전지 및 바이오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인공태양 연구시설 등을 기획하고 국가사업 반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지 은 이 | 조선의
펴 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헌사가 아닐까."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